

470조 예산심의 돌입...정부 "재정확장 필요"

예결위·기재위 전체회의

이총리·김부총리 출석

예산안 설명 원만한 심사 요청

국회는 5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가재정·조세 소관의 기획재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동시에 열어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국회는 이날 구체적인 예산 항목들을 검토하기 위해 현재 경제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 회의에는 이날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나와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국회의 원만한 심사를 요청했다. 또 정부는 여건이 어렵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기존

경제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재정 확장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이고 소비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만 투자가 둔화되고 고용도 위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자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하는 이유는 민간 고용창출 능력이 한계를 보여서 부득이하게 그런 것으로, '(일자리)는 인간이 먼저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과 기업의 '기(氣) 살리기'에 경제 운용이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기업과 시장의 기살리기로 경제하는 마인드, 기업이 정신이 살아나 조금 긴 시기로 봐서 일자리가 늘게 하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진단했다. 기재위에도 출석한 김 부총리는 경기침

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물가가 이번달 들어 2%를 넘었지만 연내 물가를 1.6~1.7%로 보고 있다"며 "스테그플레이션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 경제팀 교체와 관련해선 "경제상황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부총리가 지는 게 맞고 그런 각오로 일해왔다"며 "소신껏 일해왔고 미흡한 게 있었다면 재능력 부족 탓"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내년도 세출·세입 예산에 반영되는 지역사업과 민생사업, 세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전복 세만급 재생에너지단지 조성 추진과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기간이 있을 것"이라며 전복 도민들과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지가 조성되는 9.4%의 부지는 공항 옆에서 소음 때문에 기업들이 못들어갈 것"이라고 고한 곳"이라며 "90.6%에 해당되는 면적

에 대해서는 역사상 최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선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 도입했지만 국민들이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급속한 축소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김 부총리가 정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유지하되 일몰기간만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심사에서 지역전략산업, 지역발전프로젝트, 공공유치원 확충과 관련해 증액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예산과 남북관계 예산 등을 삭감해 그 재원을 아동수당 전담화와 출산장려금 2000만원 지급 등 저출산 보육예산으로 돌리겠다고 예고해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본격 가동

김진표 의장·6개 분과위 구성

정부 경제정책 점검하고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은 물론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기업 인사까지 참여하는 국가경제자문회의를 5일 본격 가동했다. 민주당은 자문회의를 상시 가동, 집권여당으로서 '경제 살리기'에 책임을 지고 각종 정책을 점검·제안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들 얘기를 많이 한다. 실제로 그렇다. 우리 경제가 체질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금방 좋은 경제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다"며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자문회의가 정책을 잘 짚어서 우리가 새롭게 추구

하는 포용국가가 맞는 경제 정책이 잘 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자문회의 의장은 지난 8월 당대표 경선에서 이해찬 대표와 경쟁했던 '경제통' 김진표 의원이 맡았고, 수석부의장은 변재일 의원, 부의장에는 최윤열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김진표 의장은 "야당 때는 다양한 시각에서 정부여당의 정책을 비판만 하면 되기에 자문회의 운영이 쉬웠다. 그러나 여당은 국정 전반을 실제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깊은 토론을 자주 하되 목소리가 높아져 나가 혼선과 국민 불신을 낳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회의는 거시경제 및 금융, 조세재정, 산업통상, 중소기업, 노동사회복지, 균형발전 및 부동산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김병준 "내년 2월까지 비대위 종결, 새 지도부 탄생"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는 내년 2월말까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최근 당 안팎에서 비대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배가 침몰하는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제20대 총선의 공전 파동에 있으며, 친박들은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침몰하는 배의 수리를 포기하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쫓아나갔다가 되돌아온 탈당파도 사죄해야 한다"며 "서로에 대한 충절을 멈추고, 12월 원내대표 경선에 친박과 탈당파는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전당대회 일정을 감안하면 비대위가 제대로 활동할 시간은 두 달 내지 두 달 반 남았는데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직강화특위를 비롯한 주요

기구들이 움직여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병길 비대위원은 "비대위는 배가 침몰하게 된 주 책임자를 가지고 좋은 배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배가 침몰하는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제20대 총선의 공전 파동에 있으며, 친박들은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침몰하는 배의 수리를 포기하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쫓아나갔다가 되돌아온 탈당파도 사죄해야 한다"며 "서로에 대한 충절을 멈추고, 12월 원내대표 경선에 친박과 탈당파는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대표들이 5일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국회 사랑채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문대통령 지지도 55.6%...5주 연속 내리막

리얼미터...민주 41·한국 20% 과 20대, 진보층에선 소폭 상승했다. 리얼미터 측은 "북미비핵화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줄고 추가 급락 등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 소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도도 5주째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41.3%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1.1%p 오른 20.6%로 한 주 만에 다시 20%대를 회복했다. 정의당은 0.4%p 오른 9.4%를 기록하며 다시 10% 선에 근접했다. 바른미래당은 0.3%p 상승한 7.1%, 민주평화당은 0.1%p 오른 3.0%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판문점 선언 비준·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이견...선거제 개편 공감

문 의장·여야 5당 대표 회동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은 5일 '조월회' 두 번째 정례 모임을 갖고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오찬을 하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선거제 개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판문

점선언의 비준동의를 자주 늦출수록 남북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며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반면 손 대표는 "지금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미국 제재 때문에 안되지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적인 예산이 나오면 그때 비준동의를 국회에서 하면 된다"며 현시점에서의 비준동의에 반대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에도 의견이 갈렸다. 이해찬 대표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판결이 나오도록 여야가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손 대표는 사법부 내의 해결을 강조했다. 그동안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 입장을 펴던 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선 해당 사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다만 여야대표들은 선거제 개편에 원칙적 공감대를 보였다. 이해찬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비례성이 발휘되도록 하는데 저희 당은 동의한다"며 "다만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정계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잡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도 "국회 권능 강화를 위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서 마무리를 짓자는 방향이나 목표가 나온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한국당과 민주당에서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얘기를 내놓지 못해 정계특위에서 그 논의를 계속 볼 것이다. 현실적인 방안을 큰 당에서 용기 있게 얘기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6
	한국어교육학과	1
사범	유아교육과	2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예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7

* 신학과는 군중서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2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신학대학원 (특별전형) • 원서접수 : 2018. 11. 20(화) ~ 11. 28(수)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일반전형)
 • 원서접수 : 2018. 12. 3(월) ~ 12. 12(수)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 ~ 2018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사소 3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